

농인의 금융이해력과 재정관리 실태조사

전 은 수*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생

윤 병 천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농인의 금융이해력과 재정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금융이해력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적 접근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전국 농아인협회를 통해 20세 이상 농인 215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7개의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에서 3개 영역은 30%대로 낮았고, 2개 영역은 70%대로 비교적 높았으며, 2개 영역은 50~60%대로 나타났다.

둘째, 농인의 재정관리에 관한 분석에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관리에 대한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인의 소득대비 초과지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관리 정보 취득 경로에서 인터넷과 친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인의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해 각 계층과 영역별로 다각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농인, 금융이해력, 재정관리, 금융교육, 수화통역, 경제교육

I. 서 론

1. 필요성

개인의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 교신저자(sign3927@hanmail.net)

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0권 3호)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해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더불어 한국은행을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인터넷 금융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농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몇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장애, 둘째, 개념이 없는 수화통역의 질(質)에 관련한 사항이다(황순의, 2007). 즉, 수화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교육에서 수화는 잘했지만 내용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이준우, 2004a). 셋째로, 금융지식 증대를 위한 교육기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농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내용이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일반적인 교육, 문화, 복지, 생활 등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김범수, 2008; 이태수, 2007; 전은수, 2009).

한편, 금융교육은 소비, 저축, 투자, 신용, 개인금융, 화폐·금융·자산관리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식 및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선택과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증대시키는 것이다(윤지애, 2005; Jacob et al., 2000; 박철, 2004; 최병모, 1998; 최은진, 2004; 고혜현, 2006).

이러한 금융교육의 목적에 대해 강창희(2008)는 오늘날 미취업, 조기퇴직, 장기실업과 오래 사는 위험 즉, 장수 리스크 등에 대비해 일생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학렬(2007)은 저축 액수에 관계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삶에 자신감과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인에 대한 금융교육은 농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인의 금융이해력과 재정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금융이해력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과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움이 되게 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인의 금융이해력과 재정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금융이해력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농인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하여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금융 선진국과 우리나라 금융교육 현황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해 금융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조기 금융교육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금융선진국과 우리나라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전국금융교육기금(NEFE)은 청년파산, 신용불량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경제활동 유지를 목적으로 बैं킹, 보험, 신용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점프스타트(Jump\$tart)의 개인금융교육 내용을 통해 소득의 원천을 이해시킴으로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혜연, 2006). 주목할 것은 신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자신의 신용도에 따른 경제 활동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부문에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은행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 중반 우수인력 채용과 지역밀착화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 불황과 개인 파산의 급증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 중심의 민·관연계 금융교육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 초·중등학교의 상당수가 수학, 지리, 사회, 건강교육 등 정규과목과 금융교육을 연계하고 있다(박철, 2003).

그리고 일본은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학교교육 전 학년에 걸쳐 생활, 사회, 기술, 가정, 도덕,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 등의 학습지도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윤지애, 2005). 새로운 경제교육의 목표를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건전한 금전관, 기초적인 금융경제지식 등을 유아원생, 초등학교학생, 중학교학생에게 실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근영, 2004).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 특징은 소비자교육과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고와 의사결정력 신장, 경제 윤리의식 강화, 다양한 자료 제공과 발전적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김진희, 2008; 최지애, 2007).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다이내믹한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김정호(2006)의 지적과 보험교육은 거의 없기 때문에 확률과 보험의 관계, 리스크 관리, 보험의 종류 등 구체적 사항이 요구된다는 이규은(2007)의 지적도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윤지애(2005)는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내용을 지적했고, 고혜현(2006)은 사회과목에서 경제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흥미 없는 원론적인 내용과 어려운 경제용어, 입시

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0권 3호)

위주의 교육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최은진(2004)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한 저축, 투자, 보험, 노후대비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것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용관리에 관한 교육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 농인의 금융교육 현황

농인은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한 활동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영향을 준다. 이준우(2004b)는 농인의 의사소통 조건으로 의사소통방법, 이해도의 일치 및 수화통역의 익숙함 그리고 수화통역자의 '전공지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전공지식'이란 수화통역자의 금융이해력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접근 가능한 금융이해력 증대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김범수(2008)는 최근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에게 교과목 학습지도나 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성인에게 조리사, 이용, 미용, 양재, 포장, 제과, 제빵, 도배, 에어로빅, 꽃꽂이, 독서지도, 종이 접기 교양강좌 등을 노인에게 여가 문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이태수(2007)는 지역복지발전의 계기로 민관 협치(governance)의 중요성과 민·관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여 보건, 복지, 고용, 문화, 평생학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기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농인에게 금융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의 심화, 저축률 저하와 성장기반의 약화, 금융소외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급증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과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08년 12월 5일 현재 한국농아인협회에 등록된 전국 농아인 시, 도 협회를 통해 20세 이상 농인 2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표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농인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27	59.1
	여성	88	40.9
연령	20대	54	25.1
	30대	74	34.4
	40대	61	28.4
	50대	26	12.1
학력	중졸 이하	46	21.4
	고졸	118	54.9
	전문대졸	30	14.0
	대졸	17	7.9
	대학원 이상	4	1.9
계		215	100.0

2. 검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점프스타트(JumpStart, 2002), 윤지애(2005), 고혜현(2006), 윤계섭(2006)의 문헌을 통한 자료 수집과 서울, 경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인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다시 15년 이상의 은행, 증권, 보험회사 금융교육책임자 및 대졸 이상 학력 농인을 통하여 내용적 타당도를 검증한 후 설문항의 용어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성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금융이해력 및 재정관리 조사 설문지 구성

문항구분	문항의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재정관리 (투자)	- 저축 여부, 월 소득, 저축정도 - 소득, 지출 관리여부	1-3	4
	- 여유자금 운영 형태, 펀드에 대한 이용도 - 투자 형태 확인, 지출과 투자 정보 취득 형태	1-3	6
금융 이해력	- 저축상품 이해 여부, 장애인 비과세 혜택 인지여부 - 시중은행 역할이해, 신용도이해 여부, 대출이해 여부	1-7	7
개인적 특성	-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1-4	4

3. 설문 실시 방법

2008년 4월 20일, 6월 22일, 11월 23일에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인 10명씩을 대상으로 1, 2, 3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6일 ~ 27일에는 금융기관에 15년 이상 종사하는 금융교육책임자 8명을 대상으로 설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설문항의 용어 및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월 12일 ~ 3월 31일까지 16개 전국 농인 시, 도 협회를 통해 설문지를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각 협회에 20부씩 교부하여, 우편 또는 직접 회수방식으로 회수기관은 15개 기관이고 전체 회수율은 67%였다.

4. 자료 처리

연구 목적 1과 2의 해결을 위해 교차분석(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금융이해력

1) 요구불 예금에 대한 금융이해력

일반적 특성별로는 학력 수준에 따라 중졸 이하는 58.7%, 고졸은 42.7%, 전문대졸은 63.3%, 대졸 이상은 71.4%가 요구불 예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5$).

2) 생계형 예금의 한도에 대한 금융이해력

일반적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력 수준별로도 중졸 이하는 22.2%, 고졸은 30.8%, 전문대졸은 26.7%, 대졸 이상은 47.6%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생계형 예금의 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3) 장애인 비과세 혜택에 대한 금융이해력

일반적 특성별로는 학력 수준에 따라 장애인 비과세 혜택에 대한 금융이해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졸 이하는 26.7%, 고졸은 34.7%, 전문대졸은 43.3%, 대졸 이상은 66.7%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 비과세 혜택에 대한 금융이해력이 있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4)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금융이해력

일반적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등 모든 변인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지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금융이해력은 대부분의 농인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금융이해력

일반적 특성별로는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금융이해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연령층별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5$), 학력별로도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6) 본인의 신용정보 확인 권리에 대한 금융이해력

일반적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층 학력 수준 등 모든 변인에서 본인의 신용정보 확인 권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인의 신용정보 확인 권리에 대한 금융이해력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은행 여신에 대한 금융이해력

일반적 특성별로는 연령층에 따라 은행 여신에 대한 지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24.5%, 30대는 50.0%, 40대는 36.2%, 50대 이상은 40.0%가 대출관련 은행 여신 지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필요한 3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20대 연령층의 지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8) 농인의 금융이해력 요약

농인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7개의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

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0권 3호)

을 요약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농인의 금융이해력 요약

내용	정답율(%)	오답율(%)
요구불 예금	51.9	48.1
장애인 생계형 예금의 한도	30.0	70.0
장애인 비과세 혜택	37.4	62.6
한국은행 역할	78.4	21.6
개인신용 관리	64.7	35.3
개인신용정보 확인	71.5	28.5
은행 여신	38.6	61.4

<표 3>과 같이 농인의 금융이해력을 하위 영역별로 측정된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금융이해력 내용 중 세금과 관련한 장애인 생계형 예금의 한도와 장애인 비과세 혜택, 은행 여신에 대한 금융이해력이 낮았고, 한국은행의 역할과 개인신용정보 확인관련 금융이해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인의 금융이해력이 일부 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인에게 유익한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재정관리

1) 재정관리 목표 설정 수준

농인의 재정관리 목표 설정 수준은 <표 4>와 같이 나타나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관리 목표 설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 < .05$).

<표 4> 농인의 재정관리 설정 수준 단위: 명(%)

구 분	항상 가지고 있다	가끔 목표를 점검한다	보통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합계	χ^2 (p)
남성	16 (12.6)	31 (24.4)	39 (30.7)	18 (14.2)	23 (18.1)	127 (100)	.975
여성	8 (9.1)	21 (23.9)	29 (33.0)	15 (17.0)	15 (17.0)	88 (100)	(.914)
중졸 이하	1 (2.2)	7 (15.2)	16 (34.8)	9 (19.6)	13 (28.3)	46 (100)	
고졸	13 (11.0)	28 (23.7)	35 (29.7)	20 (16.9)	22 (18.6)	118 (100)	22.896*
전문대졸	4 (13.3)	10 (33.3)	11 (36.7)	3 (10.0)	2 (6.7)	30 (100)	(.029)
대졸 이상	6 (28.6)	7 (33.3)	6 (28.6)	1 (4.8)	1 (4.8)	21 (100)	
전 체	24 (11.2)	52 (24.2)	68 (31.6)	33 (15.3)	38 (17.7)	215 (100)	

*p<.05

<표 4>를 보면 농인의 교육 수준 정도가 재정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정관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과 지출내용의 기록 또는 기억 수준

농인의 소득과 지출내용의 기록 또는 기억 수준은 집단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표 5> 소득과 지출내용의 기록 또는 기억 수준 단위: 명(%)

구 분	항상 기록한다	가끔 한다	보통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합계	χ^2 (p)
중졸 이하	1 (2.2)	15 (32.6)	11 (23.9)	9 (19.6)	10 (21.7)	46 (100)	
고졸	10 (8.5)	30 (25.4)	43 (36.4)	19 (16.1)	16 (13.6)	118 (100)	21.937*
전문대졸	6 (20.0)	8 (26.7)	9 (30.0)	6 (20.0)	1 (3.3)	30 (100)	(.038)
대졸 이상	5 (23.8)	9 (42.9)	4 (19.0)	2 (9.5)	1 (4.8)	21 (100)	
전 체	22 (10.2)	62 (28.8)	67 (31.2)	36 (16.7)	28 (13.0)	215 (100)	

*p<.05

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0권 3호)

<표 5>을 보면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지출내용의 기록 또는 기억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소득과 지출내용의 기록 또는 기억이 재정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금융교육부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득대비 초과지출 수준

농인의 소득대비 초과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소득대비 초과지출 수준 단위: 명(%)

구 분	항상 한다	가끔 한다	보통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합계	χ^2 (p)
20대	4 (7.4)	13 (24.1)	21 (38.9)	5 (9.3)	11 (20.4)	54 (100)	27.582** (.006)
30대	11 (14.9)	20 (27.0)	28 (37.8)	13 (17.6)	2 (2.7)	74 (100)	
40대	5 (8.2)	26 (42.6)	21 (34.4)	5 (8.2)	4 (6.6)	61 (100)	
50대 이상	4 (15.4)	6 (23.1)	14 (53.8)	2 (7.7)		26 (100)	
전 체	24 (11.2)	65 (30.2)	84 (39.1)	25 (11.6)	17 (7.9)	215 (100)	

** $p < .01$

<표 6>를 보면 소득대비 초과지출 수준은 연령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그러나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대비 초과지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적인 소비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지출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어 모든 연령층에서 계획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인 재정관리 정보 취득경로

농인의 개인 재정관리 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개인 재정관리 정보 취득 경로 단위: 명(%)

구 분	부모	TV 또는 신문	인터넷	친구	금융 기관	협회	기타	합계	χ^2 (p)
20대	5 (9.3)	12 (22.2)	13 (24.1)	8 (14.8)	9 (16.7)	1 (1.9)	6 (11.1)	54 (100.0)	
30대	4 (5.4)	11 (14.9)	18 (24.3)	18 (24.3)	8 (10.8)	9 (12.2)	6 (8.1)	74 (100.0)	32.295* (.020)
40대	7 (11.5)	9 (14.8)	15 (24.6)	13 (21.3)	3 (4.9)	6 (9.8)	8 (13.1)	61 (100.0)	
50대 이상		6 (23.1)	4 (15.4)	5 (19.2)		9 (34.6)	2 (7.7)	26 (100.0)	
전 체	16 (7.4)	38 (17.7)	50 (23.3)	44 (20.5)	20 (9.3)	25 (11.6)	22 (10.2)	215 (100.0)	

*p<.05

<표 7>를 보면 연령층별로는 20 ~ 40대는 인터넷과 친구를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50대 이상은 협회를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5).

전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재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농인의 금융이해력과 재정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농아인 시, 도 협회를 통해 20세 이상 농인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7개의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장애인 생계형 예금의 한도, 장애인 비과세 혜택, 은행 여신에 대한 3개 영역 금융이해력이 30%대로 낮았고, 한국은행의 역할과 개인 신용정보 확인 관련 2개 영역 금융이해력은 70%대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구불 예금과 개인신용관리 2개 영역 금융이해력은 50~60%대로 나타났다.

둘째, 농인의 재정관리에 관한 분석에서는 학력 수준 정도가 재정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관리에 대한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인의 소득대비 초과지출 비율에서는 모든 연령대에 전반적으로 초과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관리 정보 취득 경로에서 인터넷과 친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농인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완전히 표준화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인 뿐만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연령별 구체적인 항목으로 다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농인의 금융이해력이 일부영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금융기관, 정부 등 모두가 연계하여 농인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해 교육과 정보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희 (2008). **인생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고혜현 (2006). **중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이 경제현상이해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근영, 최숙희 (2004).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수, 신원우 (2008).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김정호 (2006). **사회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김진희 (2008).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문항분석.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학렬 (2007). **서민들의 금융생활 길라잡이**. 한국은행.
- 박철 (2003). **선진국의 청소년 금융교육 실태와 시사점**. 월간금융 5월호.
- 박철 (2004). **금융교육과 소비자 교육의 연계방안**. 국민은행연구소.
- 윤지애 (2005). 금융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규은 (2007). 한국의 손해보험 완전 판매에서 보험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이준우 (2004a). **농인과 수화**. 인간과 복지.
- 이준우 (2004b). **수화통역 입문**. 인간과 복지.
- 이태수 (2007).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 행정자치부편.
- 전은수 (2009). 농아인의 금융지식과 재정관리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 복지대학원.
- 최병모 (1997). **사회과 교육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구성을 위한 연구**;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경제교육논단.
- 최은진 (2004).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의 구성과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지애 (2007). 한국경제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순의 (2007). 설교수화통역사의 활동 현황과 만족도.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 대학원.
- Jacob, Katy, Sharyl, & Malcom Bush (2000). *Tools for Survival: An Analysis of Financial Literacy Programs for Lower-Income Families*. Woodstock Institute.
- Jump\$tart Coalition (2002).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Second Edition)*.

The Financial Literacy of the Deaf and the Reality of their Financial Management

Jeon, Eun-Soo

Graduate Student, Korea Nazarene University

Yoon, Byeong-Cheon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Rehabili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financial literacy of the deaf and to assist in their financial stability with educational approaches by investigating financial literacy of the deaf and the reality of their financial management.

215 deaf people over 20 years old, randomly chosen through various associations of the deaf in Korea, ha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literacy was generally higher as the education level of the participant was higher. In order to measure the detailed financial literacy of the deaf, the levels were divided into seven sub-sections and were analyzed accordingly. It was shown that three sub-sections were low with 30% in their financial literacy, two sections were comparatively higher with 70% and two other sections resulted in 50-60%.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reality of financial management of the deaf,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background showed higher understanding of financial management. But overall, the ratio of excess expenditure against income have turned out to be generally high among the deaf, and they tend to get the financial management 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friend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financial literacy of the deaf, various educational approaches suitable to different levels and areas are most needed. A more regular and systematic approach for financial education is thus required.

Key Words

: the deaf,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education, communication in sign language, economic education

논문 접수: 2009. 7. 26 심사 시작: 2009. 8. 7 게재 확정: 2009. 9. 15

